

## 차상위 계층 우울 독거노인 삶의 경험: 현상학적 연구

김재은<sup>1</sup>, 이미형<sup>1\*</sup>, 이재원<sup>1</sup>, 이상은<sup>1</sup>, 박시현<sup>2</sup>  
<sup>1</sup>인하대학교 간호학과, <sup>2</sup>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Life in Near Poor Elderly Living Alone in Depression: Phenomenological Study

Jae-Eun Kim<sup>1</sup>, Mi-Hyoung Lee<sup>1\*</sup>, Chai-Won Lee<sup>1</sup>, Sang-Eun Lee<sup>1</sup>, Si-Hyun Park<sup>2</sup>

<sup>1</sup>Dept. of Nursing, Inha University,

<sup>2</sup>Red Cross College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요약** 연구의 목적은 차상위 계층 우울 독거노인 삶의 경험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파악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본질적 구조를 알아보고자 함에 있다. 연구 대상은 인천광역시 A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국형 노인우울척도(KGDS) 9점 이상, 현재 독거생활 1년 이상 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없는 차상위 계층 8명이다. 연구방법은 개인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2018년 5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Colaizzi 분석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연구결과 48개의 주제와 19개의 주제모음, 6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이 차상위 계층 우울 독거노인으로 살아가는 경험은 '도움 없이 살수 없는 초라한 삶', '몸과 마음이 병든 삶', '자립하고 싶은 삶', '감사하는 삶', '내면의 평화가 있는 삶',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삶'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통해 차상위 계층 우울 독거노인을 위한 지역사회의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적인 차원의 다양한 복지 정책을 위한 근거 자료의 기초가 되고자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meaning of life in near-poor elderly living alone and experiencing depression. We focused on their lived experiences so that we could understand the essential structure of what kind of life they live. The eligible population included those aged 65 or older, showing 9 points or higher in the Korean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KGDS), currently living alone for more than 1 year, having no problems of communication difficulties, and nationally defined as a near-poor group. A purposive sample of 8 seniors enrolled in a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were recruited. The phenomenological approach suggested by Colaizzi was used. Data was collected from May 2018 to October 2019 through in-depth interviews. As a result of the study, 6 categories, including 48 themes and 19 theme clusters, were drawn from the data: 'a shabby life that cannot live without help', 'a life where the body and mind are sick', 'a life that wants to be self-reliant', 'a life of gratitude', 'a life with inner peace', and 'a life that needed institutional support.'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evidence for developing suitable emotional support programs for the near-poor elderly living alone and to enact various welfare laws and policies at the national level.

**Keywords** : Aged, Lower Income Population, Depression, Independent Living, Qualitative Research

---

\*Corresponding Author : Mi-Hyoung Lee(Inha Univ.)

email: mihyoung@inha.ac.kr

Received July 29, 2020

Accepted December 4, 2020

Revised September 1, 2020

Published December 31, 2020

## 1. 서론

### 1.1 연구 필요성

한국은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제 연합(UN)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인 경우에는 고령화 사회, 14% 이상일 경우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구분하는데 2017년 8월 기준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는 725만으로 전체인구의 14.0%를[1] 차지하여 고령사회로 들어섰다.

수명의 연장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할지 등의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야기하며 사회보장 제도가 미약한 한국은 몸이 불편하거나 빈곤층에 속한 노인들은 가족이 보살피지 않으면 비참한 노후를 맞게 된다[2]. 노인인구의 초고속 고령화 현상은 가족관계의 갈등, 은퇴로 인한 경제문제, 1인가구의 증가로 고독과 외로움, 우울 등의 문제가 많아져 노인자살에 까지 이어지게 된다[3]. 2017년 우리나라 독거노인은 19.1%로 노인 5명중의 1명은 독거노인이라고 볼 수 있다[1]. 혼자 사는 독거노인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독한 삶을 살아가기에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게 되며,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긍정적인 사회망을 형성하지 못하면 잘 살아내질 못한다[4]. 또한 독거노인은 비독거 노인에 비해 자살생각이나 우울감이 높으며[5] 우울증상 중에서도 지루하고 희망 없음의 정서적 고충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된다[6]. 노인 자살의 또 다른 요인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7] 이렇듯 독거노인 중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울 독거노인은 아주 취약한 대상이라고 하겠다.

차상위 계층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로[8] 겉으로 보기에는 소득이 최저 생계비를 넘어 서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가처분 소득은 수급자 보다는 적고 비금융 자산이나 금융자산 등의 재산 소득 환산액은 높아 수급자 혜택을 보지 못하는 복지 사각 지대에 놓인 빈곤 계층이다[9].

선행연구에서는 노인 우울과 자살과의 연관성,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양적 연구 및 독거노인 대상의 질적연구[3, 5, 6, 10-13]가 주로 있으며,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차상위 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9, 14-16]가 대부분으로 차상위 계층 중에서도 가장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 우울 독거노인의 삶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으로 취약하지만 기초생활

수급권 혜택을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 계층 우울 독거노인의 삶은 어떠한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본질적 삶의 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차상위 계층 우울 독거노인 삶의 경험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본질적 구조를 알아보고자 함에 있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지역사회 차상위 계층 우울 독거노인의 삶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본질적 구조를 알고자 하는 목적으로 현상학적 접근 방법 중 Colaizzi 분석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Colaizzi 분석방법 연구는 참여자 각 개인의 독특성 보다는 참여자 전체의 공통된 경험의 속성을 도출하여 참여자 관점에서 경험의 본질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17].

### 2.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자로 국가로부터 사회보장 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 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하였다.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 급여(기준 중위소득29%)자를 제외한 기준 중위 소득 30% 이상에서 기준 중위소득 50% (826,000원) 이하인 자를 차상위 계층이라고 한다[8]. 참여자 선정기준은 인천광역시 A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국형 노인우울척도(KGDS: Korean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이하 KGDS) 9점 이상이며, 현재 독거생활 1년 이상 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없는 차상위 계층으로 본 연구에 스스로 참여를 희망한 자로 하였다. 제외기준으로는 치매진단을 받거나 인터뷰 질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 안 되는 자로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 대상자는 8명으로 여성이 6명, 남성이 2명이었다. 참여자의 연령 분포는 65세에서 83세이며 평균 나이는 76.6세였다. KGDS 점수분포는 9점에서 15점으로 평균점수는 12.3점이었다. 독거기간은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20년으로 평균 독거기간은 13.4년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Partici pants	Sex/Age	KGDS Score	Physical illness	Reason for living alone	Years of living alone	Reasons for not recipients	Welfare benefits
1	F/80	14	back pain	Bereavement	15	home ownership	sharing of conversation lunch box delivery old-age pension long-term care
2	F/75	13	back pain leg pain	divorce	17	home ownership child income	sharing of conversation lunch box delivery old-age pension long-term care
3	F/65	9	back pain leg pain	branch family	5	home ownership self-supporting income	self-supporting work
4	F/70	13	DM back pain leg pain	branch family	10	self-supporting income child income	self-supporting work old-age pension
5	F/83	13	leg pain	branch family	15	child income	lunch box delivery old-age pension long-term care
6	M/82	9	back pain leg pain	branch family	15	child income	lunch box delivery old-age pension
7	M/83	12	back pain	branch family	10	child income	lunch box delivery old-age pension long-term care
8	F/76	15	knee pain	divorce	20	car ownership	sharing of conversation old-age pension senior citizen's job project

### 2.3 연구자의 준비

본 연구의 자료수집 및 대상자 면담, 자료 분석을 수행한 3명의 연구자들은 대학원에서 질적 연구 과목을 수강하고 다수의 질적 연구 관련 서적 및 논문을 통해 연구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였으며 그 중 2 명은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십 수 년 간 대상자들의 상담과 사례관리를 진행한 경력이 있으며 1명은 상급종합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며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 질환 환자들의 상담과 치료를 해온 정신건강전문요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전체적인 기술 및 분석을 책임지고 있는 두 명의 연구자들은 현재 간호대학에서 질적 연구 방법론, 상담 및 인간관계론 등의 과목을 가르치고 다수의 질적 연구를 수행하고 게재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 2.4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연구 참여자로부터 개인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2018년 5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참여자에 따라 최소 1회 ~ 2회의 면담을 하였고, 각 면담시간은 1시간 내외로 소요 되었다. 면담 장소는 참여자 집으로 연구자가 가정 방문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면담 초기에는 참여자의 관계형성을 위하여 연구자에 대한 소개를 하였고 참여자의 일반적인 사항을 확인하면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연구 참여에 대한 설명과 함께 면담 시 녹음이 진행됨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면담 방법은 비 구조화된 심층면담으로 본 연구의 핵심 질문은 “차상위 계층 우울 독거노인의 삶의 경험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라는 개방질문을 시작으로 “차상위 계층 우울 독거노인의 과거의 삶의 경험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차상위 계층 우울 독거노인의 현재의 삶의 경험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차상위 계층 우울 독거노인이 도움을 받은 경험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겠습니까?”라는 내용으로 이어졌으며 모든 면담내용은 녹음기로 녹음하고 참여자로부터 관찰된 표정, 몸짓, 사용한 용어들도 내용에 삽입 하였다. 녹음한 내용과 메모는 컴퓨터에 입력하였으며, 참여자 진술 그대로를 기술하였다. 면담은 적은 대상자 수를 보완하기 위해 가능한 2회 면담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면담 내용이 중복되고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아 자료 포화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종료하였다.

## 2.5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Colaizzi가 제시한 6가지 분석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18].

첫째, 면담 내용을 기록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본 연구의 관심현상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과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둘째, 참여자가 기술한 내용 중에서 본 연구의 관심현상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하였다. 셋째, 의미 있는 진술로 구성 되는 문장이나 구절을 신중하게 읽고 의미 있는 진술에서 연구자의 언어로 구성된 의미로 재 진술 하였다. 넷째, 구성된 의미에서 현상이 유사한 것을 묶어 주제를 도출하였다. 다섯째, 도출된 주제를 다시 주제모음, 범주로 나누어 조직화 하였다. 여섯째, 주제를 관심 현상과 접목시켜 명확한 진술로 최종 기술 하였다.

## 2.6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 진행 전 연구자가 속한 I 대학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연구수행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며, 본 연구자는 참여자들의 우울로 인한 고통경험에 대한 부담감과 스트레스 등을 고려하여 인터뷰를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또한 참여자로부터 수집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할 것이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개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를 하였으나 중간에라도 참여중단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음과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을 명확히 설명하였다. 녹음된 자료는 연구자의 컴퓨터에 보관됨을 알리고,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음을 다짐하였고, 연구가 종료되고 법적으로 보관하는 기간 후 바로 폐기 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 2.7 연구의 엄격성 확보

연구의 엄격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Lincoln 과 Guba [19]의 엄밀성 평가 기준에 따라 신뢰성, 적용성, 타당성,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먼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석결과를 연구 참여자 2인에게 보여주고(member checking) 분석 내용이 그들의 삶의 경험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두 번째 적용성의 확립을 위해 연구의 자료수집 과정이나 분석절차, 면담내용을 있는 그대로 심층적으로 기술(thick description)하였다. 세 번째 타당성 확립을 위해 질적 연구 수행에 경험이 많은 간호학과 교수 2인과 우울 노인의 상담 경험

이 많은 전문가 2인으로부터 분석 결과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확인을 하였다. 네 번째 중립성 확립을 위해 참여자의 경험을 그대로 이해하고 관심현상을 탐색하기 위하여 연구자의 편견이나 태도에 대하여 판단 중지를 하고 가치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 3. 연구 결과

연구결과 8명의 참여자로부터 얻은 원 자료에서 의미 있는 진술은 198개였으며 추출된 진술문을 반복적으로 읽고 의미가 유사한 내용들을 묶어 109개의 의미가 구성되었다. 이는 다시 차상위 계층 우울 독거노인의 삶의 경험을 나타낼 수 있는 48개의 주제와 19개의 주제모음, 6개의 범주로 도출되었다(Table 2). 그 결과 차상위 계층 우울 독거노인의 삶의 경험은 '도움 없이 살수 없는 초라한 삶', '몸과 마음이 병든 삶', '자립하고 싶은 삶', '감사하는 삶', '내면의 평화가 있는 삶',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삶'으로 나타났다.

각 범주와 이들 범주에 포함된 주제모음에 대한설명은 다음과 같다.

### 3.1 범주1: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초라한 삶

범주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초라한 삶'에 포함된 세 개의 주제모음은 '타인에게 의지해 살아감' '사람이 그리움' '내 처지가 초라함' 이었다. 참여자들은 신체적인 불편이나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타인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생활과 자신의 무능력함이 초라하게 느껴졌으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람에게 대한 그리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1.1 타인에게 의지해 살아감

참여자들은 신체적인 불편과 통증, 경제력 부족 등으로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남에게 신세지고 사는 삶에 대해 미안함을 나타냈다.

*"너무 신세만 지고 살아서. 진짜 나는 왜 그렇지 남한테 신세지니까 참 그래요..."(참여자2)*

*"살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살아봐야 무슨... 나라에 도움을 주나 남한테 도움을 주나 내가 맨 날 도움을 받아야 하나까 이거는 있으나 마나한 인생이잖아"(참여자 4)*

Table 2. The Experience of Life in Near Poor Elderly Living Alone in Depression

Themes	Theme Clusters	Categor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ody is sick and I can't do anything without help</li> <li>• Sorry to live with the help of others</li> </ul>	Living by relying on oth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eing alone is lonely</li> <li>• Depressed because no one came</li> </ul>	Miss a person	a shabby life that cannot live without he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y situation being ignored is miserable</li> <li>• I don't like to hear other people's pride</li> <li>• It's embarrassing to be ignorant.</li> </ul>	My situation is po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hole body hurts</li> <li>• Work only and live the biggest role</li> <li>• Did not spend any money for me</li> <li>• Lived with my husband's affair and violence.</li> </ul>	Physical pain is extreme Living at the Sacrifice at H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egret living alone</li> <li>• Regret that I couldn't help children study</li> <li>• Regrets the warranty</li> </ul>	Regret the past life	a life where the body and mind are si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f I can die, I want to die</li> <li>• cannot die because you will only have a disability due to suicide failure</li> </ul>	Thinking of suici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ife without fun</li> <li>• Just give up and live</li> </ul>	Living d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ree learning opportunities provided by the Senior Welfare Center are good</li> <li>• Meeting a friend at the welfare center is a joy in life</li> <li>• Want to live long</li> </ul>	Learning is fun	a life that wants to be self-relia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fraid the job will drop (self-sufficiency)</li> <li>• Want to work until I can</li> </ul>	want to live while work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anks to those who come and take care</li> <li>• Thank you for the helping organizations</li> <li>• Thanks for living without starving</li> <li>• Abandon greed and live with gratitude</li> <li>• Compared to the past, it is now lively</li> <li>• Thanks for the economic help (Age Pension)</li> <li>• Comfort by supporting medical expenses for the near poor group</li> </ul>	Thanks for help	a life of gratitu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atisfied with the opportunity to work</li> </ul>	Thanks for being able to wo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aining peace through cathedral life</li> <li>• Gaining peace through church sermons</li> </ul>	Faith life is comfor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mfort because you give up desire to lean on my child</li> <li>• Think euthanasia is also necessary</li> <li>• Prepared for emergencies</li> <li>• Collect money to use when die</li> <li>• Want to live healthy until the die</li> </ul>	Putting down the heart you want to lean on Preparing for death	a life with inner pea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 lived with hospitality</li> <li>• Living with help to those in need</li> <li>• I had a good life with my husband.</li> </ul>	Recalling a happy pa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eing a recipient is not possible due to a child who has no contact.</li> <li>• Even if there are children, they are not helped at all</li> </ul>	child is rather a stumbling blo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edical expenses benefit is the most desperate</li> <li>• Rice is considered expensive</li> <li>• Transportation is considered expensive</li> <li>• I have to earn to be able to eat and live</li> </ul>	Desperate for economic support	a life that needed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t is unfair for a person with a lot of money to become a recipient</li> </ul>	Inadequate selection criteria for recipients	

### 3.1.2 사람이 그리움

참여자들은 가족이 있더라도 거의 만나지 못하고 혼자 지내다보니 우울감, 외로움, 불안감이 있으며 한 번씩 찾아와 주는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왔다가 가면은 어찌고저찌고 애기도 하고 말벗도 되고 좋더라고요 나는 딴사람은 어쩐가 몰라도 나는 좋아. 그래서 그냥 어떤 때는 기다릴 때 있어...기다려지지...”(참여자1)

“사람이 그림프. 누구라도 전화라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 그렇지만 안 오는걸 뭐... 낮이고 밤이고 전화를 해주면 고맙지 근데 안 오니까... 그러니까 견디는 거지 뭐...”(참여자2)

### 3.1.3 내 처지가 초라함

참여자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자랑할 자식도 없고 돈도 없고 배움도 부족하여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를 꺼려하며 누군가의 무시 하는듯한 말투, 행동에 대해 속상하지만 그렇다고 나서서 말도 못하고 속앓이만 하는 자신의 처지를 초라하게 느끼고 있었다.

“우리를 알고보는 아빠도 없고 그러니까. 부산에서 아빠가 3년 되서 결혼도 이렇게 시키고 다 했는데 결혼 하자마자 트집 잡고 사람을 못살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산다고 보파리 싸가지고 집에 왔네. 얼마나 속이 상하고 그러는지 나도 막 그때는 죽겠더라고 지아빠도 없어 가지고 사람 막 무시하고 그런가 싶고...”(참여자3)

“얼마나 잘난 척하고 있는 척 하는지... 나 같은 저기는 쟤도 안 돼. 그러니까 하도 잘난 척 하고 어찌고저찌고 해서 듣기도 싫고 꼴도 보기도 싫어서 안가 잘... 안가요. 갈수도 잘 없지만 요새는... 그전에 조금 괜찮을 때 노인정에 가끔 들렸는데. 꼴베기 싫어서 잘 안가. 너무 잘난 척 해요. 너무 있는 척 하고. 말도 못해”(참여자2)

## 3.2 범주2: 몸과 마음이 병든 삶

범주 ‘몸과 마음이 병든 삶’에 포함된 다섯 개의 주제 모음은 ‘신체적 고통이 극심함’ ‘가정에서 희생만 하고 살아옴’ ‘살아온 과거를 후회함’ ‘자살을 생각함’ ‘무미진조하게 살아감’ 이었다. 참여자들은 젊은 시절부터 희생적으로 살아왔으나 남은 것은 온 몸이 아프고 지난 살아온 과거에 대한 후회뿐이며 정서적인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 3.2.1 신체적 고통이 극심함

참여자들 대부분 허리와 다리 통증으로 고생하며 심한 경우 활동에 제한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할 만한 처지가 아니기에 그대로 참고 견디며 진통제로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리가 아파서 저만큼도 못 걸어 땡겨요. 겨우 앉은걸음으로 이래이래 다니지...말도 못하게 아파요. 점점...이렇게 살아 뭐해요. 갔으면 좋겠고...”(참여자6)

“너무 아파요 아주 몸이 다 아파요 허리 아프지 다리 아프지 이 몸이 다 아파요 그냥 쭉쭉쭉 말도 못하게 아파요. 그래.. 점점 이번에 아프고 나서 눈도 잘 안보이고 귀도 잘 안들리고 그러니까 아주... 그래요...”(참여자2)

### 3.2.2 가정에서 희생만 하고 살아옴

참여자들은 젊은 시절부터 집안에서 경제활동을 도맡아 했으며 남편의 폭력과 외도에도 자식의 장래를 위해 자신의 삶은 참고 포기 한 채 희생적으로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맨날 일 땡기고 새벽에 저기 차타고 밭에 일 밭에 일찍 가는 거야 인제 차 택지 잡아타고 그럼 택시 잡아타고 가서 모란가면 내려서 또 버스 트럭을 타는 거야. 그럼 저 어두침침해야 되요. 그러면 가는 동안에 날이 새요. 그럼 거기서 아침 먹고 일 그 집 일을 종일 하는 거야.”(참여자5)

“저기 뭐야 의처증이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나를 의심하고. 식당 같은데 가서 일하면 딱 그 시간에 못 와요. 손님 있으면 어떻게 올수가 없어. 그러면 좀 늦게 오면 늦게 왔다고...맨날 싸웠는데. 그리고 또 손찌검을 해버리니까. 사람이 못 살겠더라고...여자가 딱 생기니까 나가더라고.”(참여자3)

### 3.2.3 살아온 과거를 후회함

참여자들은 과거 열심히 일하며 살았지만 빚보증을 서서 집안이 망하고 그로인해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자식들에게 원망을 들은 경험들로 살아온 과거를 후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워낙에 빗보(빚보증)를 많이 서가지고 많이 갚았는데도 지금 저기 천만 원짜리는 한 달에 그냥 오만 원 씩이라도 갚으라고 그래서 오만원씩 갚고 있고 또 그냥 은행 빛이 한 삼백이 남았어요.”(참여자4)

“개는 나 때문에 시집도 못가고 저러고 있다고 나를 원망하는 거지... 내가 집안을 망해먹고 그래서 시집을 안 가고 시집도 못가고 그랬다는 거지... 지네들이 좀 풍족하게 살 수 있는데 엄마가 인제 집하고 다 날려먹고 저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얼굴을 안 본다는 거지” (참여자8)

### 3.2.4 자살을 생각함

참여자들은 현재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싶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죽고 싶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한 과거 자살 실패 경험으로 또다시 자식들에게 상처를 줄까봐 이리저리도 저리저리도 못하고 포기한 채 살아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죽었으면 죽었으면 좋겠는데 진짜예요. 죽을 수만 있으면 죽었으면 좋겠어. 근데 이리저리도 못하고 저리저리도 못하고 내가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여기서 또 실패를 하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싶어갖고 지금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참여자8)

“옛날에 막막했던 생각이 나고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자살 시도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실패를 해서 이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실패를 안했으면 지금 어찌면 시도할지 모르는데. 실패하고 나니까 또 실패를 할까봐 그러면은 애들한테 더 짐만 되고 그럴까봐 그러지도 못하고...”(참여자4)

### 3.2.5 무미건조하게 살아감

참여자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 아무런 의욕도 재미도 없으며 그저 죽지 못해 포기하고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쩔 때는 그냥 왜 이려고 사나 얼른 가면 편할 텐데.. 아무것도 모르고 좋잖아요.. 그렇다고 진짜 별 저기도 다 했어.. 자살 할려고도 했고, 했는데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사는 거야.”(참여자2)

“즐거운거 재미있는 건 없어요.... 뭐 이렇게 맨날 방에서

만 이려다 더 못 견고 그냥 그러다 죽는 거 아닌가 나가서 지팽이라도 짚고 걸어보고 그러지.”(참여자5)

## 3.3 범주3: 자립하고 싶은 삶

범주 ‘자립하고 싶은 삶’에 포함된 두 개의 주제모음은 ‘배우러 다니는 것이 즐거움’ ‘일하면서 살고 싶음’이었다. 참여자들은 젊어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배우는 것에 부딪힘과 즐거움을 느끼며 스스로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가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3.1 배우러 다니는 것이 즐거움

참여자들은 젊어서 배우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노인 복지관이나 주민 센터에서 무료로 배울 수 있는 배움의 기회가 많아 좋다고 하였으며 하나씩 배워 나갈 때마다 뿌듯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유일한 낙이라고 하였다.

“요새 사는 맛은 복지관 가서 친구들 만나는 거 그 맛에 가는거고. 그래 사는거고.”(참여자7)

“동사무소에서 요가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했어요. 막 노래 교실도 다니고 열심히 운동도 다니고 헬스도 하고 막 그렇게 생활을 하니까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고”(참여자3)

### 3.3.2 일하면서 살고 싶음

참여자들은 몸이 불편하고 아프지만 그래도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조금이라도 자신의 힘으로 벌어서 쓰고 싶은 바람이 있었다. 하지만 일할 수 있는 능력보다는 나이만 보고 일자리를 주지 않아 속상하다며 노인 일자리가 많아지길 기대하고 있었다.

“노인 일자리 같은 거 꾸준한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일할 수 있으니까 어디서 설거지라도 할 수 있는데 나이만 조건으로 안 쳐주니까... 문대통령이 인제 노인 일자리두 저기 한다고 공약을 했으니까 일 할 수 있으면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자활두 방침이 바뀌어서 음 그래도 일 할 수 있을 때 까지 해줬으면 하는 그게 있죠 바람이.”(참여자4)

## 3.4 범주4: 감사하는 삶

범주 ‘감사하는 삶’에 포함된 두 개의 주제모음은 ‘도움의 손길에 감사함’ ‘일할 수 있어 감사함’이었다. 참여

자들은 자신들을 찾아와 돌봐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식사도 배달해주는 직접적인 도움의 손길에 무척 고마워하며 스스로 별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음에 부족하나마 만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 3.4.1 도움의 손길에 감사함

참여자들은 자신들을 찾아와 돌봐주고 도시락도 배달해주고 이야기도 들어주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 미안함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다. 예전에 비해 훨씬 살만하며 얼마 안 되지만 노령연금도 요긴하게 쓰인다고 감사해 하고 있었다.

“노인 복지관 매일 따뜻한 밥 주지 따뜻한 국 주지. 반찬 매일 바꿔 주지. 그러니까 그건 진짜 잘 하는 거예요... 한 끼라도 그렇게 해주는 게 고마운 거죠.”(참여자 4)

“...세상 이만큼 좋아지고 이렇게 우리 같은 노인네들을 돌보고 난 너무 좋아요. 꼭 뒤 받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나를 생각해줘서 너네가 거시기를 해서 신경 쓰고 나를 주는구나. 난 딸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감동 받은 거 있어요.”(참여자1)

“고맙죠. 나 같은 늙은이 찾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와서 어.. 파스라도 하나주고 붙여주고 가고, 혼자서 못 붙이잖아요 잘...”(참여자2)

“국민연금 그거 들었더니 15만원 나오지...노령연금 20만원 나오고...그걸로 가스비 나가고, 관리비 나가고 텔레비전 보는거 팔천 원 나가고...인제 조금 찾아다 쓰고 남는 거 없지. 그래도 그거 없으면 못살지...”(참여자5)

### 3.4.2 일할 수 있어 감사함

참여자들은 일하면서 살고 싶어 했으며 자신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조그만 일이라도 차상위 해서 일도 다니고 해요...중구에서 그 사업단이 일곱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 세탁, 세탁은 기업으로 나갔고, 기름집도 있고, 세탁도 있고, 뭐 배송. 할머니들, 독거 있는 이불 갖다가 빼는데도 있고 김은 작년부터 새로 생겼어요. 김 올해 생겼나 부다 김 구워서 팔고 그러는 사업단...다행이죠. 우리네한테는.”(참여자3)

“한 달에 17만원 나와요. 열흘 하면은. 추석 대목이다 보니까 조금 한 달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하고 그랬지. 오늘도 일이 없어서 못하고 내일 오후에 물건이 들어온다고 하네...그러라도 어디예요...”(참여자8)

## 3.5 범주5: 내면의 평화가 있는 삶

범주 ‘내면의 평화가 있는 삶’에 포함된 네 개의 주제 모음은 ‘신앙생활이 위안이 됨’ ‘기대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음’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함’ ‘행복했던 과거를 회상함’이었다. 참여자들은 종교생활로 영적인 위로를 받으며 삶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고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5.1 신앙생활이 위안이 됨

참여자들은 신앙생활을 통해 영적인 위로를 받으며 스스로의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내적 평화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요일 날은 주말에 교회 가는게 굉장히 나이에요.”(참여자4)

“내가 못가니까 이제는 성당에서 한 번씩 와요. 세 사람도 오고 너이도 오고...와서 기도해 주고...뭐 대답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마른입으로 앉았다 가고 내놔도 딱질 없으니까...한 번씩 오면 좋죠...”(참여자6)

### 3.5.2 기대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음

참여자들은 자식들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의 무게를 내려놓음과 동시에 심리적인 편안함을 찾아 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좀 서운했는데 내가 마음을 고쳤어. 내가 내 마음을 고쳤다니까. 그래서 내가 참에는 남들이 자식들이 잘못하니 어쩔고 하도 해서 아이고 나는 나갔다 제주도 퍼문이라도 새끼들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랬거든... 처음에는 서운했어. 서운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안되지. 여기 내가 여기 마음을 바꿔치기 한거야 그렇게 편하더라고.”(참여자 1)

“고맙고 미안하고...속상하고...바라는 것도 없고...가면 그만인데 뭐. 그 돈 가져가냐고...뭐 욕심을 내냐고...가면 그만인 인생을. 한번 왔다 가면 그만인걸. 많으면 뭘 하고 적으면 뭘 해. 굶지 않고 남한테 꾸러 가지 않으면 되지. 뭘 잘 먹어야 맛이야. 그런대로 먹고 살다 가는 거



지 뭐..."(참여자2)

### 3.5.3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함

참여자들 모두 독거생활을 하고 나이가 있다 보니 응급 연락처를 적어두거나 자신의 장례비를 마련하는 등 답답히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제 이번에는 모아서 저기 나 죽고 하면 죽으면 써야지...죽을 때 사람 돈 없으면 되요? 이제 나이가 꼭 찼는데. 83인데."(참여자5)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게 걱정이지 판거는 없어...앞으로 어떻게 편하게 죽느냐 이거지...안락사 그거 하긴 해야겠더라고 응, 병원에서 말아야 신년씩 이십년씩 식물인간 되가지고...저렇게 살지 말아야 하는데...그래 이렇게 비상연락망 해놔어. 119하고 담당 그 오는 사람 있어 이월수라고"(참여자7)

### 3.5.4 행복했던 과거를 회상함

참여자들은 젊은 시절 대접받고 살거나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던 경험들을 떠올리며 자신의 인생에도 꽃처럼 좋았던 순간이 있음을 회상하며 살고 있었다.

"현대 건물 있을 때 좋았지...그때는 무식해도 그래도 뭐 감투를 하나 써줬으니까 고향 땅 내려 가가지고 감투 씌워 줬으니까 저기는 머리를 하이바를 쓰고 다녔거든. 하이바가 노란거 하얀거 있었다고. 하얀거는 간부들이고 노란거는 중간 간부, 파란거는 쫌득이고 그랬단 말이야. 하이바가 표시였어...난 하이바 허연거 쓰고 다녔다고. 허허허...그때가 좋았어. 그래 인제 살다 보니까 그 생각이 자꾸 올라와요."(참여자7)

"남편 있을 때가 제일 좋았죠...돈 없고 그래도 가정적인 남편이 있고 애들하고 그때가 제일 행복했죠...장례식에 와서 신이 질투해서 하나 데려갔다고 소리 할 정도로 의가 좋았어요."(참여자4)

## 3.6 범주6: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삶

범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삶'에 포함된 세 개의 주제모음은 '자식이 오히려 걸림돌이 됨' '경제적 지원이 간절함' '수급자 선정 기준이 부당함' 이었다. 참여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며 기초생활수급자 만 큼은 아니어도 의료비, 교통비 등의 지원과 법망을 교묘히 피해 수급자가 되는 사례를 꼬집으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3.6.1 자식이 오히려 걸림돌이 됨

참여자들은 자식들과의 왕래가 거의 없거나 있어도 일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나며 전혀 생계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 수급자도 못되고 걸리는 게 많으며 오히려 자식의 존재가 걸림돌처럼 느껴진다고 하였다.

"...그래 아들이 있어서는 내가 저기 저기(기초생활 수급자) 안 된다 그러더라고..."(참여자5)

"차상위들의 문제는 전체 저게 문제라고 거 도와줄 가정이 있더라도 도와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참여자7)

### 3.6.2 경제적 지원이 간절함

참여자들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비교해 정부의 지원이 미미하다고 느끼며 쌀값이나 교통비, 의료비 지원 정도의 경제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였다.

"우리내 차상위 말로만 차상위 혜택은 하나도 없어요. 전기 요금 팔천 원, 만원 이거 혜택 받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야 말로 수급자처럼 뭐 쌀을 싸게 사먹을 수가 있나 그런 것도 있지 허다 못해 쓰레기봉투도 다 돈 주고 사야지 그런 사소한 것 까지 다 그래야 되니까 김장때도 수급자는 김장을 해가지고 조금씩 노나주지만 차상위는 그런게 일절 없어요."(참여자4)

"교통비가 많이 나간다고 교통비 버스타고 다니잖아 뭐 교통비 그제 뭐 한달 해봐도 뭐 계산해 봐도 오만 원씩 나가니까 그제 보통 부담이 아니야... 우리 노인네들은 한 푼 돈 들어오는데 없고 말이야 그러니까 생활하는 게 참 엄청나게 부담이 가지..."(참여자7)

### 3.6.3 수급자 선정 기준이 부당함

참여자들은 주변의 또래 노인들 중 집도 있고 자식들도 다 잘 사는데 기초생활 수급자가 된 사람이 있다며 제도적 허점이 있음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수급자들도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집들 몇 칸씩 몇 채씩 가지고 있는 놈이 수급자가 된 놈들이 있다고. 아들딸이 잘 사는 놈도 말이야 수급자 된 놈도 있고. 우리 처럼 신경해도 안 되고 말이야. 이거 골치 아픈 거야..."(참여자7)

“막내가 지금 차도 가져 가갔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고 무슨 무슨 법이 그 폐차 직전에 있는 차 때문에 안 된다는 게 말도 안 되고...(왕래도) 없었는데 어느 날 와서 달라 해서 저 내가 안 쓰고 있었으니까 달라 해서 쫓더니 그 결과가 이렇게 되 버렸네.”(참여자8)

## 4. 논의 및 결론

### 4.1 논의

본 연구는 차상위 계층 우울 독거노인의 삶의 경험을 통해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본질적인 구조를 알아보고자 현상학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초라한 삶’, ‘몸과 마음이 병든 삶’, ‘자립하고 싶은 삶’, ‘감사하는 삶’, ‘내면의 평화가 있는 삶’,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삶’ 이라는 6개의 핵심 범주와 19개의 주제 모음이 도출되었다.

먼저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초라한 삶’에서는 참여자들이 신체적인 질환과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주변의 도움으로 살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받아들이면서도 마음 한 편으로는 그런 자신을 초라하게 바라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변의 도움은 살아가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이기에 간혹 공공기관에서의 무시하는 듯한 말투와 태도, 요양보호사들의 무례함에 화가 나면서도 말 한마디 못해보는 자신을 비참하게 느끼고 있었다. 대부분의 참여자가 자식은 있지만 연락이 두절되거나 일년에 한 두 번 볼까 말까하는 소원한 관계로 지내고 있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할 일 없이 보내다보니 만성 우울과 불안을 느끼며 누구라도 한 번 찾아와 보고 말이라도 걸어주었으면 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김정희(2009)의 연구[14]에서 여성 차상위 계층은 전담 공무원의 사무적이고 냉랭한 태도에 자존감이 저하되고 수치심을 느낀다고 하였으며, 허소영(2010)의 연구[20]에서도 수급자라는 이유로 서비스의 질이 낮고 무시 받는 경험을 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독거노인에게 말벗 도우미 프로그램은 노인의 우울감과 자존감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11].

두 번째 ‘몸과 마음이 병든 삶’에서는 젊은 시절부터 고생만 하며 열심히 살아온 과거와 달리 현재 자신에게 남은 건 육신의 고통과 살아온 과거에 대한 후회, 남은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 절망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참여

자들 대부분은 노인성 퇴행성 질환으로 신체적인 고통을 호소하였으며 병원을 다니는 것조차도 경제적인 여건(의료비, 교통비)으로 어려워 하고 있었다. 몸이 아프고 고달픈 것 외에도 정서적인 우울감, 절망감을 보이며 자신의 삶 자체에 대한 후회와 앞으로 남은 인생을 그저 포기한 채 살아가거나 죽을 수 있다면 죽고 싶은 자살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독거노인은 가정에서 남편을 대신해 가장 역할을 해온 희생적인 존재였으나 홀로 남겨진 순간 남은 삶은 고통이고 고난으로 여겨 죽음을 기다린다[12]는 선행연구와 같았으며, 손정남(2012)의 연구[5]에서도 독거노인은 비독거 노인에 비해 자살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을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 ‘자립하고 싶은 삶’에서는 참여자들의 삶에 희망적인 메시지가 나타났는데 바로 배움에 대한 열망과 스스로 일을 해서 독립적으로 살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어려서부터 풍족하지 못한 가정에서 어렵게 살아왔으며 배우지 못해 무식하다는 스스로 낮은 자세를 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이나 주민 센터에서 춤이나 노래,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강의를 들으러 다니는 것을 흥미로워 했으며 유일하게 그 시간을 삶의 낙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몇몇은 자활근로나 노인 일자리 사업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이들에게 일자리는 자신이 살아 있다는 증거이며 그나마 자신이 번 돈으로 손주들 선물도 사 줄 수 있고 자식에게 조금이나마 보태줄 수 있어 자신이 할 수 있는 한은 계속 일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있었다. 이상봉과 한준(2016)의 연구[9]에서 차상위 계층은 무학이나 초등학교 이하가 60 % 이상이라는 결과를 볼 때 본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임종린(2016)의 연구[13]에서 여성 독거노인들이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접하고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혼자가 아닌 경험을 통해 인생의 즐거움을 찾는다고 하였으며, 여성 차상위 계층이 가장 원하는 것은 지속적이고 꾸준한 일자리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원한다[14]는 선행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네 번째 ‘감사하는 삶’에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신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진심으로 걱정하고 마음의 정을 나눠 주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신체적인 불편함으로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누구하나 자신들에게 돈 한 푼 거저 주지 않을 텐데 노령연금이라도 받아서 생

활할 수 있고 임대주택이라도 살 수 있게 해주는 정부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자신들을 보러 와주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에 대해서도 가족보다 더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허소영(2010)의 연구[20]에서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으며 다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환원하고 싶어 한다는 결과를 볼 수 있었는데 본 연구와의 차이점은 허소영(2010)의 연구[20] 참여자들은 남성노인 대상으로 아직은 일할 수 있다는 스스로의 능력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있어 본 연구 참여자들과 국가적인 지원이나 도움의 손길에 감사함을 느끼는 것은 일치하지만 나아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생각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섯 번째 '내면의 평화가 있는 삶'에서는 스스로의 심리적 안정과 평화를 위해 종교의 도움을 받거나 욕심을 버리고 현재에 만족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종교 활동은 노인들의 우울로 인한 자살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3], 현재 궁핍하고 부족한 노년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 죽을 때 남에게 폐 끼치지 않고 죽으려면 건강하게 살다 가야 한다[20]는 죽음에 대해 준비하는 마음가짐은 본 연구 결과와도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여섯 번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삶'에서는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경제적인 지원이 가장 필요함과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는 과정에서 현재의 제도로는 불합리함을 경험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자식은 있지만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정이 대부분이며 그마저도 연락도 두절된 경우도 있어 명목상으로만 자식인 경우도 있었다. 그렇지만 자식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는 경험을 하였으며, 반대로 누가 봐도 자신들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이 수급자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제도의 허점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차상위 계층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수급자와 비교 시 너무 미미하여 그것만으로는 살아가는데 있어 큰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차상위 계층이 가장 원하는 지원은 의료, 교육과 생계, 자활 순으로 나타났으며[15], 비수급 노인계층 대부분이 부양의무자의 자격 기준으로 인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16] 선행 연구 결과는 본 연구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차상위 계층 우울 독거노인은 기존의 우울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의 노인 관련 연구에서 벗어나 있으며 또한 대상자들의 삶의 질이나 우울 경험, 프로그램의 효과성 등을 입증하는 양적연구와도

다른 그들의 삶을 깊이 있게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삶의 의미와 본질적인 구조를 파악함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계층 노인만을 위한 정책적 보완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며 지역사회 정서적지지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정보 제공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일개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차상위 계층 중에서도 KGDS 9점 이상의 우울증상과 1년 이상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대상자 수가 적었으며 또한 연구대상자 모집 중 차상위 계층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어 최종 연구 대상자는 8인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그들의 삶의 경험을 일반화 하는데 신중함이 필요하다. 둘째, 차상위 계층 우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미흡한 실정으로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 4.2 결론

본 연구는 차상위 계층 우울 독거노인의 삶의 경험을 통해 그들의 삶의 의미와 본질적인 삶의 구조를 파악하고자 연구가 진행되었다. 총 8명의 대상자와 심층면담을 통해 파악한 삶의 경험은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초라한 삶', '몸과 마음이 병든 삶', '자립하고 싶은 삶', '감사하는 삶', '내면의 평화가 있는 삶',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삶'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통해 차상위 계층 우울 독거노인을 위한 맞춤형 제도 보완과 지역사회 정서적지지 프로그램 개발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초 자료로 쓰이기를 희망한다.

본 연구를 통해 차상위 계층 우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 연구 결과의 검증이 필요하며, 상기 대상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 양적 연구를 통해 그들에게 필요한 제도적 지원 방향을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되길 제안한다.

##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Elderly Statistics (2017), Available From: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33> (accessed July. 10, 2020)
- [2] E. H. Lee,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the Life-Satisfaction of Senior Companion Care Volunteers*, Ph.D dissertation, Baekseok University, pp.1, 2015.

- [3] S. A. Park, J. S. Hur, "Moderating Effects of Religios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of Older People", *Korean Society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0, No.62, pp.79-108, 2013.  
DOI:<http://doi.org/10.21194/kjgsw.62.201312.79>
- [4] A. N. Schwartz, C. L. Snyder, J. A. Peterson, A. N. Schwartz, *Aging and life*,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84.
- [5] J. N. Sohn,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the Suicidal Ideation in Elderly People who Live Alone or Live with Famil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Vol.21, No.2, pp.118-126, 2012.
- [6] J. E. Park, B. S. Kim, J. N. Bae, K. W. Kim, S. J. Seong et al., "Depressive Symptomatology among the Living-Alone Elderly: Hopelessness and Boredom", *Korean Association for Geriatric Psychiatry*, Vol.16, No.2, pp.97-103, 2012.
- [7] O. K. Yang, S. H. Ju,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to Suicidal Ideation among Single-Household Elderly Population", *Mental Health & Social Work*, Vol.37, No.0, pp.321-347, 2011.
- [8] Korea Law Information Center,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vailable From:  
<http://law.go.kr/lumLsLinkPop.do?lspttninfSeq=70007&chrClsCd=010202> (accessed July. 10, 2020)
- [9] S. B. Lee, J. Han, "Characteristics and Determinants of Poverty: Focused on the Secondary Poor Group", *Journal of Korean Regional Development*, VOL.25, No.1, pp.1-26, 2016.  
DOI:<http://dx.doi.org/10.18350/ipaid.2016.25.1.1>
- [10] Y. S. Kim, C. M. Lee, S. J. Namgoung, H. K. Kim, "A Study on the Social Networks Effectiveness to Prevent the Lonely Death of the Elderly who Live Alone", *Institute of Social Science*, VOL.50, No.2, pp.143-169, 2011.
- [11] D. M. Kim, E. S. NAM, S. S. Bae, D. S. Shin, Y. J. Choi, "Effects of Peer Support Home Visiting for Older Adults Living Alone in a Rural Area", *Mental Health & Social Work*, Vol.44, No.4, pp.35-63, 2016.
- [12] M. R. Won, K. J. Lee,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Depression in Elderly Women Living Alon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Vol.25, No.3, pp.195-206, 2016.  
DOI: <https://dx.doi.org/10.12934/jkpmhn.2016.25.3.195>.
- [13] J. R. Lim, "It means to participate in the welfare program of the female elderly people living alone, qualitative research on the needs of welfare services", *The Korean Society of Welfare for the Aged*, Vol.6, No.2, pp.169-179, 2016.
- [14] J. H. Kim, "Perception of Stigma for being poor and Experiences in Using Public Assistance among Female Near Poverty Groups",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Welfare Policy*, Vol.36, No.1, pp. 143-171, 2009.  
DOI: <https://dx.doi.org/10.15855/swp.2009.36.1.143>
- [15] J. H. Ryu,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support projects for the Near Poverty Groups", *Health · welfare Issue&Focus*, Vol.288, No.0, pp.1-8, 2015.
- [16] T. W. Kim, "The Income Support System for the Poor and Its Issue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Vol.195, No.0, pp.38-47, 2013a.
- [17] J. W. Creswell,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P.515, Hakjisa, 2015, pp.102.
- [18] P. F. Colaizzi,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onald S. Valle & Mark King (ed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pp.6.
- [19] E. G. Guba, & Y. S. Lincoln, *Fourth generation evaluation*, Newbury Park, Calif.: Sage Publications, 1989, P.296.
- [20] S. Y. Heo, "Study on the Lived Experience of Elderly Men Living Alone in a Single Room Occupancy (Chokbang)",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30, No.1, pp. 241-260, 2020.

김 재 은(Jae-Eun Kim)

[정회원]



- 2008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실버산업학과 (실버산업학 석사)
- 2017년 3월 ~ 현재 :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박사 과정)
- 1997년 1월 ~ 현재 : 인하대병원 간호사

<관심분야>

노인정신간호, 예술치료

이 미 형(Mi-hyoung Lee)

[정회원]



- 1983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석사)
- 1994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박사)
- 1995년 9월 ~ 현재 :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정신건강, 중독

이 채 원(Chai-Won Lee)

[정회원]



- 2010년 2월 :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20년 현재 :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박사 과정)
- 1999년 6월 ~ 현재 : 인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관심분야>

정신장애인 자녀, 정신장애인 인권, 노인우울

이 상 은(Sang-Eun Lee)

[정회원]



- 2014.3~현재 :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석사 과정)
- 2003.3.23.~2007.3.20. :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간호사
- 2007.4.1.~2008.5.31. : 경기도광주시 정신보건센터 간호사
- 2008.12.16.~현재 : 인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팀장

<관심분야>

우울, 자살

박 시 현(Si-hyun Park)

[정회원]



- 2011년 8월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전공 (간호학 석사)
- 2015년 8월 :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Nursing (간호학 박사)
- 2016년 3월 ~ 2020년 2월 :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20년 3월 ~ 현재 :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질적연구, 젠더 및 가정폭력